

더 물러설 곳 없다…페퍼스, 홈서 ‘연패 탈출’ 총력



오늘 기업은행과 중위권 싸움 나서
조이 부담 분산·범실 줄이기 관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홈에서 연패 탈출에 재도전한다. 페퍼스는 17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를 상대로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페퍼스는 지난 12일 정관장과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지면서 6연패에 빠졌다. 길어진 연패 흐름 속에서 이번 경기는 남은 시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실한 분수령이다. 정관장전 패배로 6승 8패(승점 17)가 된 페퍼스는 기업은행(5승 9패·승점 17)에 쫓기고 있다. 이번 기업은행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어, ‘연패 탈출’ 이상의 의미가 걸린 승부이다. 최근 연패 상황에서 페퍼스 경기들은 공통된 패턴을 보여왔다. 범실이 흐름을 내주고,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순간이 겹치면 승부가 급격히 기울다는 점이다. 페퍼스는 조이를 중심으로 득점 루트를 만들고

승부처에서 실수가 쌓이며 흐름을 빼앗기는 장면을 반복하고 있다. 초반 리듬을 잡아 세트 중반까지 실점을 최소화 하고도, 승부처에서의 범실이 세트를 내주는 변수가 되고 있어 실수 관리가 우선이다. 무엇보다 리시브가 안정돼야 한다. 리시브가 무너지면 세터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공격이 하이볼 위주로 흐르면서 상대 블로킹·수비가 조이를 향해 집중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연패를 끊으려면 팀 전체의 실수 관리와 공격 전개 다양화가 필요하다. 페퍼스는 최근 라인업 변화를 주며 새로운 조합을 점검해 왔다. 지난 경기에서 박은서-고예림이 선발로 나서 수비·리시브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고, 공격에서도 조이에 풀린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힘을 보탤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패에 따른 부담을 털고 ‘원팀’으로 빈틈을 채우는 것이다. 페퍼스는 앞선 경기에서 25-16으로 여유롭게 1세트를 가져오고

도 흐름을 잊지 못했다. 범실이 나오면서 급격히 전열이 흐트러지고 결정력 저하로 이어지는 모습의 반복이다. 결국 20점 이후 승부처에서 ‘한 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클러치 역할도 중요하다. 박정아가 승부처 득점으로 공격의 물꼬를 트고, 시마무라가 중앙 속공과 블로킹으로 상대 흐름을 끊어준다면 페퍼스는 ‘버티는 경기’로 승부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기업은행은 여오현 감독대행 체제에서 중위권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빅토리아를 축으로 국내 공격수들도 고르게 힘을 보태며 경기력이 단단하게 올라왔다는 평가도 받는다. 페퍼스로선 흐름을 바꾸는 ‘한 점’이 필요하다. 지난 앞선 정관장전 1세트처럼 서버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 블로킹·수비 연결로 득점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기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승산은 있다. 승부는 전술보다 범실과 리시브, 즉 ‘기본’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페퍼스가 홈에서 연패를 끊고 ‘분위기 전환’과 ‘승위 상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지난달 18일 페퍼스가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홈 경기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를 세트스코어 3-1로 제압했다. 이 경기를 끝으로 페퍼스는 6연패에 빠졌다. (KOVO 제공)

‘셔틀콕 최강’ 안세영, 3년 연속 ‘올해의 여자 선수’



지난 1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WF 갈라 어워드에서 ‘올해의 여자 선수’ 상을 받은 안세영(왼쪽)이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BWF 유튜브 화면 캡처)

BWF 선수들이 뽑은 상 ‘2관왕’
월드투어 파이널스 최다승 도전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3년 연속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올해의 여자 선수 영예를 안았다. 안세영은 지난 1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WF 갈라 어워드에서 왕즈이(2위), 천위페이(5위·이상 중국), 아마구치 아카네(3위·일본) 등을 제치고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받았다. 안세영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2023년에 처음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받았고,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지난해에도 세계 정상 자리를 지킨 바 있다. 이번만 아니라 안세영은 올해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여자 선수’에도 선정되며 2관왕에 올랐다.

이 상은 지난해 처음 제정됐으며, 안세영은 초대 수상자로 오른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여자 단식 압도적인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안세영은 올 시즌 14개 국제대회에 출전해 여자 단식 선수 최초로 10승 고지를 밟았다. 이는 2023년 자신이 세운 여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안세영은 당시 세계선수권 대회와 8개의 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삼성생명)은 오는 17일부터 항저우에서 열리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에 출전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기록 수립에 도전한다. 안세영이 이 대회에서도 우승하면 2019년 11승을 올려 남녀를 통틀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을 세운 일본 남자 선수 모모타 겐토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연합뉴스

세플러, PGA 투어 4연속 ‘올해의 선수상’



우즈 이어 역대 2번째 기록
6개 대회 우승·17개 부문 1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세플러(미국)가 타이거 우즈(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4년 연속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세플러는 2024시즌 7승을 거뒀다. PGA 투어는 16일 올해의 선수에게 주는 잭 니클라우스 어워드 수상자로 세플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세플러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했다. 1990년 창설된 잭 니클라우스 어워드에서 4년 연속 수상 기록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수상한 우즈에 이어 두 번째다. 세플러는 올 시즌 최고의 성적을 냈다. 그는 순바닥 부상으로 2025시즌을 지각 출발했으나 20개 출전 대회 중 6개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지난 5월에 열린 더CJ컵 바이런 넬슨에서 최종 합계 31언더파 253타로 PGA 투어 72홀 최소타 타이 기록을 세우며 시즌 첫 승을 거뒀고, 곧바로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제107회 PGA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세플러는 이후 메도리얼 토너먼트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시즌 마지막 메이저 골프대회 디오픈을 제패했다.

그는 PGA 투어 플레이오프(PO) 2차전 BMW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든 뒤 시즌 마지막 정규 출전 대회 프로코어 챔피언십에서 시즌 6번째 타이틀을 획득했다. 최근 40년 동안 2년 연속 PGA 투어 6승 이상을 거둔 선수는 우즈에 이어 세플러가 두 번째다. 세플러는 2024시즌 7승을 거뒀다. 세부 기록도 최상위권을 싹쓸이했다. 상금 1위(2765만9550달러), 평균 타수 1위(68.13타) 등 PGA 투어가 집계하는 17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첫 탈락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톱10 성적은 올 시즌 PGA 투어 최다인 17번을 기록했다. 세플러는 “올 시즌 기록 없이 일관된 성적을 냈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시즌 올해의 선수는 올 시즌 정규대회에 15회 이상 출전한 투어 회원들이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투표로 선정했다. 최종 후보엔 세플러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벤 그리핀(미국) 4명이 올랐다. 지난 6월 로켓 클래식에서 우승한 울드리치 포트기터(남아프리카공화국)는 올해의 신인선수에게 주는 아널드 파머상을 받았다. 그는 어니 엘스(1994년), 트레버 이멀먼(2006년)에 이어 이 상을 받은 세 번째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전남 유소년 야구 꿈나무 한자리에…영암서 ‘지역교류전’

24개팀 300여명 참가

전남도체육회가 ‘2025 단체경기종목 야구 지역교류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지난 13·14일 영암군 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에서 야구 지역 교류전이 열렸다. 도체육회(회장 송진호)와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이사장 최미순)이 공동 주관한 이번 교류전에는 새싹부, 유소년부, 주니어부 등 3개 종별에서 8개 클럽, 총 24개 팀이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부, 일반클럽 소속 학생 선수가 한 자리에서 경쟁을 펼쳤으며 20·21일에는 3라운드 및 결승전이 열린다. 이번 교류전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금으로 개최됐으며, 앞선 11월에는 목포스포츠클럽 주관으로 축구종목 경기가 진행됐다. 한편 도체육회는 지난 10월 대한체육회가 공모를 통해 축구와 야구종목에서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이 영암군 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에서 열린 교류전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1229 여객기 참사 추모음악회
'진혼, 기억'

일시 : 2025-12-26(금)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1

광주예술의전당 특별기획연주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음악회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일시 : 2025-12-27(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